

# CARY SARANG CHURCH A BAPTIST CATECHISM<sup>1</sup>

## What Is a Catechism?

1 Corinthians 14:19 Nevertheless, in church I would rather speak five words with my mind in order to *instruct* [katecheo] others, than ten thousand words in a tongue.

Galatians 6:6 Let *the one who is taught* [katecheo] the word share all good things with *the one who teaches* [katecheo].

In each of these verses the Greek word for “instruct” or “teach” is *katecheo*. From this word we get our English word “catechize.” It simply means to teach biblical truth in an orderly way. Generally, this is done with questions and answers accompanied by biblical support and explanation.

## Why Is It Important?

1. We are required to “continue in the faith, stable and steadfast” (Col. 1:23).
2. We are urged to “attain to the unity of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so that we may no longer be children, tossed to and fro and carried about by every wind of doctrine” (Eph. 4:13-14).
3. There are many deceivers (1 John 2:26).
4. There are difficult doctrines “which the ignorant and unstable twist to their own destruction” (2 Peter 3:16).
5. Leaders must be raised up who can “give instruction in sound doctrine and also confute those who contradict it” (Titus 1:9).

2 Peter 3:18 *But grow in the grace and knowledg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To him be the glory both now and to the day of eternity. Amen.*

# 캐리사랑교회 침례성도 소요리문답<sup>2</sup>

## 소요리문답이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4:19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 마디 말을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카테케오]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다섯 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6 말씀을 배우[가르침을 받]는 사람[카테케오]은 가르치는 사람[카테케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 두 구절에서 “가르치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 카테케오는 “가르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 그리스어 단어로부터 영어 단어 “catechize” [“교리를 문답식으로 가르치다”]가 발생했다. 그러하기에, 소요리문답[Catechism]은 성경의 교리를 질서 있게 가르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이해 될 수 있다. 이 소요리문답은 질문과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답에 성경 구절과 설명이 더해져 있다.

## 소요리문답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1.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에 튼튼히 터를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 (골 1:23).
2.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진리에 대해 동의하여 더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간 교리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한다 (엡 4:13-14).
3. 세상에는 교리적으로 남들을 속이는 자가 많다 (요일 2:26).
4. 교회 안에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를 잘못 해석하여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사람들이 있다 (벧후 3:16).
5.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딤후 1:9).

베드로후서 3:18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sup>1</sup> This Catechism is based on “A Baptist Catechism” adapted by John Piper ([https://cdn.desiringgod.org/pdf/blog/A\\_Baptist\\_Catechism-new.pdf](https://cdn.desiringgod.org/pdf/blog/A_Baptist_Catechism-new.pdf)). Piper’s Catechism is based on “The Baptist Catechism” (1689) and “the Philadelphia Baptist Association”

(1742). All the English Scriptures cited in this document are based on the ESV.

<sup>2</sup> 이 문서의 모든 한글 성경 구절은 새번역에서 인용되었다.

**QUESTION 1: WHO IS THE FIRST AND BEST OF BEINGS?**

**Answer: God is the first and best of beings.**

Isaiah 44:6 Thus says the LORD, the King of Israel and his Redeemer, the LORD of hosts: “I am the first and I am the last; besides me there is no god.

Psalms 8:1 O LORD, our Lord, how majestic is your name in all the earth! You have set your glory above the heavens.

Psalms 96:4 For great is the LORD, and greatly to be praised; he is to be feared above all gods.

Psalms 97:9 For you, O LORD, are most high over all the earth; you are exalted far above all gods.

1 Samuel 2:2 “There is none holy like the LORD: for there is none besides you; there is no rock like our God.

질문 1. 누가 모든 존재 중 처음 되시고 최고가 되시는가?

답: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 중 처음 되시고 최고가 되신다.

이사야 44:6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 이스라엘의 속량자이신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나 밖에 다른 신이 없다.

시편 8:1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시편 96:4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시편 97:9 주님, 주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어느 신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2:2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 QUESTION 2: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Answer: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1 Corinthians 10:31 So,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all to the glory of God.

Psalms 16:11 You make known to me the path of life; in your presence there is fullness of joy; at your right hand are pleasures forevermore.

Psalms 37:4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and he will give you the desires of your heart.

Psalms 73:25-26 Whom have I in heaven but you? And there is nothing on earth that I desire besides you. <sup>26</sup> My flesh and my heart may fail, bu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and my portion forever.

Isaiah 43:7 everyone who is called by my name, whom I created for my glory, whom I formed and made.”

Comment: “Glorify” does not mean make glorious. It means [to] reflect or display as glorious.

“Chief” means “the first and most important.”

Other words you could use for “end” are “goal” or “purpose.”

답: 사람의 존재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31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시편 16:11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 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시편 37:4 기쁨은 오직 주님께에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시편 73:25-26 내가 주님과 함께 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 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sup>26</sup>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이사야 43:7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빛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부연설명: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영화롭지 않은 존재를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 단어는 이미 영화로운 존재의 영화로움을 반영하거나 드러냄을 의미한다.

“목적”이라는 단어는 “목표”라고 이해 될 수도 있다.

질문 2. 사람의 존재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 QUESTION 3: HOW DO WE KNOW THERE IS A GOD?

**Answer: The light of nature in man, and the works of God, plainly declares that there is a God. (But his word and Spirit only, do effectually reveal him unto us for our salvation.)**

Romans 1:19–20 For what can be known about God is plain to them, because God has shown it to them.<sup>20</sup> For his invisible attributes, namely, his eternal power and divine nature, have been clearly perceived, ever since the creation of the world, in the things that have been made. So they are without excuse.

Psalms 19:1–2 The heavens declare the glory of God, and the sky above proclaims his handiwork.<sup>2</sup> Day to day pours out speech, and night to night reveals knowledge.

2 Timothy 3:15 and how from childhood you have been acquainted with the sacred writings, which are able to make you wise for salvation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1 Corinthians 2:10 these things God has revealed to us through the Spirit. For the Spirit searches everything, even the depths of God.

Additional references: 1 Corinthians 1:21–24; 2:9; Matthew 11:27

Comment: The question distinguishes two kinds of knowledge: one is natural and comes from conscience (“the light of nature in man”) and from the works of God in nature; the other is spiritual or saving, and comes from the recognition of the true value of God and the beauty of his character. Natural knowledge is possessed by all people and thus makes all people accountable to honor and thank God. Spiritual knowledge is possessed only by those whose natural blindness has been overcome by the Spirit of God (1 Cor. 2:14-16). Our children must come to see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lest they think they are saved by much natural knowledge about God—which the devils also have (James 2:19).

질문 3: 하나님께서 존재 하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답: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빛(양심)과 창조된 만물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명백히 선포한다. (그러나, 오직 성경 말씀과 성령님 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효력 있게 계시한다.)

로마서 1:19–20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sup>20</sup>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시편 19:1–2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 준다.<sup>2</sup>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 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 준다.

디모데전서 3:15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고린도전서 2:10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추가 성경구절: 고린도전서 1:21–24; 2:9; 마태복음 11:27

부연설명: 이 질문은 두 가지 종류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설명한다: (1) 인간의 본성인 양심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 지식”과 (2) 하나님의 참된 가치와 아름다우심을 알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 “자연적 지식”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할 책임이 있게 만든다. “영적 지식”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 영적인 장님의 상태에서 벗어난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다 (고전 2:14–16). 우리 아이들은 죄인이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 지식”으로 구원받지 않음을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마귀들도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 지식은 갖고 있다 (약 2:19).

#### QUESTION 4: WHAT IS THE WORD OF GOD?

**Answer: The Scripture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being given by divine inspiration, are the Word of God, the only infallible rule of faith and practice.**

2 Peter 1:21 For no prophecy was ever produced by the will of man, but men spoke from God as they were carried along by the Holy Spirit.

2 Timothy 3:16–17 All Scripture is breathed out by God and profitable for teaching, for reproof, for correction, and for training in righteousness,<sup>17</sup> that the man of God may be complete,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Additional references: Isaiah 8:20; Matthew 5:17- 18; 1 Corinthians 2:13; Psalm 19:7-8.

Comment: “Scriptures” is a special word for the “writings” of the OT and NT. Perhaps you will want to explain that the OT deals with God’s word that came before Jesus was born; and the NT is the word of God that came after Jesus was born. “Infallible” means it will never lead us astray in what it teaches. It is true and does not err. It can be trusted. “Faith” refers to right thinking and feeling; and “practice” refers to right doing. We measure our thoughts and emotions and actions by the rule of the Bible. “Inspiration” means that it is God-breathed: by his Spirit he guided his spokesmen to speak his word in their language.

답: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구약과 신약의 성경기록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믿음과 실행의 기준이 되는 유일무오한 규칙이다.

베드로후서 1: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16–17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sup>17</sup>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추가 성경구절: 사 8:20; 마 5:17-18; 고전 2:13; 시 19:7-8

부연설명: “성경기록들”은 구약과 신약에 해당하는 “문서들”을 가리키는 특별한 단어이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 탄생 전에 기록되었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 탄생 후에 기록되었다. 성경이 “무오하다”는 의미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있어서 우리를 결코 잘못 이끌지 않는다는 말이다. 성경은 진리이며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경은 믿을 만 하다. “믿음”은 올바른 생각과 감정을 의미하고, “실행”은 올바른 행위를 의미한다.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위를 판단한다. “영감”은 하나님의 숨결로 주어졌다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자신의 영으로 이끌어서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다.

**QUESTION 5: HOW DO WE KNOW THAT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Answer: The Bible evidences itself to be God’s Word by the heavenliness of its doctrine, the unity of its parts, and its power to convert sinners and to edify saints. But only the Spirit of God can make us willing to agree and submit to the Bible as the Word of God.**

Psalm 19:7-9 The law of the LORD is perfect, reviving the soul; the testimony of the LORD is sure, making wise the simple; <sup>8</sup> the precepts of the LORD are right, rejoicing the heart; the commandment of the LORD is pure, enlightening the eyes; <sup>9</sup> the fear of the LORD is clean, enduring forever; the rules of the LORD are true, and righteous altogether.

John 16:13-14 When the Spirit of truth comes, he will guide you into all the truth, for he will not speak on his own authority, but whatever he hears he will speak, and he will declare to you the things that are to come. <sup>14</sup> He will glorify me, for he will take what is mine and declare it to you.

Additional references: 1 Corinthians 2:6-7,13-16; Psalm 119:18,129; Acts 10:43; 26:22; 18:28; Hebrews 4:12; Romans 15:4; John 16:13-14; 1 John 2:20-27; 2 Corinthians 3:14-17; 4:4, 6.

Comment: “Heavenliness” refers to the fact [that] the teachings of Scripture are of such a nature that they cannot be explained by mere human resources. They bear the marks of the supernatural. “No man ever spoke like this man” (John 7:46). The “unity of its parts” has to do especially with the way all Scripture points to Christ. “To him all the prophets bear witness” (Acts 10:43).

질문 5. 우리는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는가?

답: 성경은 교리의 천국적 (혹은 초자연적) 본성, 각 부분들의 통일성, 죄인들을 회심시키고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능력으로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한다.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의하게 복종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영께서만 하실 수 있다.

시편 19:7-9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우어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sup>8</sup>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 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 준다. <sup>9</sup>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요한복음 16:13-14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sup>14</sup>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추가 성경구절: 고전 2:6-7, 13-16; 시 119:18,129; 행 10:43; 26:22; 18:28; 히 4:12; 롬 15:4; 요 16:13-14; 요일 2:20-27; 고후 3:14-17; 4:4, 6.

부연설명: 성경의 “천국적 본성”은 성경의 가르침이 단순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께서서]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 7:46). 성경의 “각 부분들의 통일성”은 특히 모든 성경기록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행 10:43).

**QUESTION 6: MAY ALL MEN MAKE USE OF THE SCRIPTURES?**

**Answer: All men are not only permitted, but commanded and exhorted, to read, hear, and understand the Scriptures.**

John 5:39 You search the Scriptures because you think that in them you have eternal life; and it is they that bear witness about me,

Luke 16:29 But Abraham said, ‘They have Moses and the Prophets; let them hear them.’

Additional references: Acts 8:28-30; 17:11.

**QUESTION 7: WHAT DO THE SCRIPTURES MAINLY TEACH?**

**Answer: The Scriptures mainly teach what man is to believe about God and what duty God requires of man.**

2 Timothy 3:16–17 All Scripture is breathed out by God and profitable for teaching, for reproof, for correction, and for training in righteousness, <sup>17</sup> that the man of God may be complete,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John 20:31 but these are written so that you may believe that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God, and that by believing you may have life in his name.

Ecclesiastes 12:13 The end of the matter; all has been heard. Fear God and keep his commandments, for this is the whole duty of man.

Additional references: Acts 24:14; 1 Corinthians 10:11.

**질문 6: 모든 사람이 성경을 사용할 수 있는가?**

**답: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셨을 뿐 아니라, 성경을 읽고, 듣고, 이해하도록 명령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요한복음 5:39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누가복음 16:29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추가 성경구절: 행 8:28-30; 17:11.

**질문 7: 성경이 주되게 가르치는 내용은 무엇인가?**

**답: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3:16-17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sup>17</sup>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31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전도서 12:13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추가 성경구절: 행 24:14; 고전 10:11

## QUESTION 8: WHAT IS GOD?

**Answer: God is Spirit, infinite, eternal, wise, powerful, holy, just, good, true, and unchangeable in his being.**

John 4:24 God is **spirit**, and those who worship him must worship in spirit and truth.”

Exodus 34:6-7 . . . “The LORD, the LORD, a God **merciful and gracious, slow to anger, and abounding in steadfast love and faithfulness,** <sup>7</sup> keeping **steadfast love** for thousands, **forgiving iniquity and transgression and sin**, but who will by **no means clear the guilty**, visiting the iniquity of the fathers on the children and the children’s children, to the third and the fourth generation.”

Numbers 23:19 God is **not man, that he should lie**, or a son of man, that **he should change his mind**. Has he said, and will he not do it? Or has he spoken, and will he not fulfill it?

Psalms 89:14 **Righteousness and justice** are the foundation of your throne; **steadfast love and faithfulness** go before you.

Psalms 147:5 **Great** is our Lord, and **abundant in power; his understanding is beyond measure.**

Revelation 4:8 . . . **Holy, holy, holy**, is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and is to come.

Additional reference: Psalm 90:2; 1 Timothy 1:17; James 1:17

Comment: Ask what “infinite” means (there is no limit to how great he is!). What does “eternal” mean? (He never had a beginning and will never have an ending!) Talk about how God can respond to us and yet not be “changeable.” (His character never changes; he acts consistently on the same principles always. Even his responses to us are known and planned long before so that his purposes are unchanging.)

## 질문 8: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답: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지혜로우시고, 권능 있으시며, 거룩하시고, 선하시며, 본성이 불변하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4:24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출애굽기 34:6-7 . . . “주,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sup>7</sup>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삼사 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민수기 23:19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시편 89:14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진실이 주님을 시중들며 앞장서 갑니다.

시편 147:5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요한계시록 4:8 . . .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시다.

부연설명: 하나님의 “무한성”은 하나님께서 제한없이 위대하신 분임을 설명한다. 하나님의 “영원성”은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 없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불변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응답하시지만, 그와 동시에 그분의 본성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본성에 맞게 일관성 있게 행동하시고, 오래 전에 세우신 자신의 변하지 않는 뜻을 언제나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 QUESTION 9: ARE THERE MORE GODS THAN ONE?

**Answer: There is only one living and true God.**

Deuteronomy 6:4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Jeremiah 10:10 But the LORD is the true God; he is the living God and the everlasting King. At his wrath the earth quakes, and the nations cannot endure his indignation.

Psalms 96:4-5 For great is the LORD, and greatly to be praised; he is to be feared above all gods. <sup>5</sup> For all the gods of the peoples are worthless idols, but the LORD made the heavens.

Comment: There are “gods” which are idols, but they are not “living”. And there are “gods” which are angels or demons, but they are not “true” God, that is they are not eternal, infinite and unchanging. Only one God is living and true.

## QUESTION 10: HOW MANY PERSONS ARE THERE IN THE GODHEAD?

**Answer: There are three persons in the Godhead: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and these three are one God, the same in essence, equal in power and glory.**

John 1:1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Matthew 28:19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2 Corinthians 13:14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Additional references: 1 Cor 2:11; 8:6; John 10:30; 14:9; 20:28; Acts 5:3-4; Col 2:9; Heb 1:3.

Comment: The word “Godhead” is needed because we shouldn’t say that there are three persons in God. No, there are three persons who are God. Nor should we say that there are three Gods. There is one God. They are distinct persons with special roles in creation and redemption. But they are in perfect harmony and are (in ways beyond our comprehension) perfectly One God.

질문 9: 세상에는 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이 존재하는가?

답: 세상에는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한 하나님만 계신다.

신명기 6:4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지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예레미야 10:10 오직 주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지요, 주님만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며, 영원한 임금이십니다. 주님이 진노하시면, 땅이 지진을 일으키고, 그 진노는 세계 만민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96:4-5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sup>5</sup>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은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부연설명: 세상에는 “신들”이라 불리는 우상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있지 않다. 그리고 이 “신들”은 천사들 혹은 악마들로서 “참된”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영원하지 않고, 무한하지 않으며, 불변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 계시고 참되시다.

질문 10: 한 신격 안에 몇분의 인격이 존재하시는가?

답: 한 신격 안에, 아버지, 아들, 성령님, 세분의 인격이 존재하시며, 이 세 인격은 한 하나님이며, 동일한 본성을 가지시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서로 동등하시다.

요한복음 1:1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마태복음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고린도후서 13:1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귄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추가 성경구절: 고전 2:11; 8:6; 요 10:30; 14:9; 20:28; 행 5:3-4; 골 2:9; 히 1:3

부연설명: 단어 “신격” 쓰인 이유는 우리가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있다고 말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인 세분의 인격이 있다고 말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세분의 하나님이 있다고 말해서도 안된다. 삼위일체의 세 인격은 창조와 구속의 사역에 있어서 각기 다른 역할을 감당하셨다. 그러나, 삼위일체의 세 인격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완벽한 조화가운데 계시며, 완전히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 QUESTION 11: WHAT ARE THE DECREES OF GOD?

**Answer: The decrees of God are his eternal purpose, according to the counsel of his will, whereby for his own glory, he has foreordained whatsoever comes to pass.**

Psalm 115:3 Our God is in the heavens; he does all that he pleases.

Isaiah 46:10 [God] declaring the end from the beginning and from ancient times things not yet done, saying, 'My counsel shall stand, and I will accomplish all my purpose,'

Daniel 4:35 all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are accounted as nothing, and he does according to his will among the host of heaven and among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and none can stay his hand or say to him, "What have you done?"

Amos 3:6 Is a trumpet blown in a city, and the people are not afraid? Does disaster come to a city, unless the Lord has done it?

Ephesians 1:11 In him [Son] we have obtained an inheritance, having been predestin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him [Father] who works all things according to the counsel of his will,

Romans 11:36 For from him and through him and to him are all things. To him be glory forever. Amen.

Comment: You might shorten it to: "God's decrees are his own plans for history. And they always happen." His purpose for the world is eternal because there never was a time when he didn't know what he was going to do. His purpose accords with the counsel of his will--that is he did not consult anyone else. He thought it all up. All plans were made in order to maximize the display of his glory. Nothing falls outside the decrees of God.

## 질문 11: 하나님의 법령(작정)이란 무엇인가?

답: 하나님의 법령(작정)은 자신의 뜻의 계획에 따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는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다.

시편 115:3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 이루신다 [직역, "자신이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신다"].

이사야 46:10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 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 고 말하였다.

다니엘 4:35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애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아모스 3:6 성읍 안에서 비상나팔이 울리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어느 성읍에 재앙이 덮치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

에베소서 1:11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로마서 11:36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부연설명: 우리는 하나님의 법령(작정)을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스스로의 계획으로서 언제나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 영원한 목적을 갖고 계신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래에 하실 일들을 모르시던 순간이 결코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스스로의 뜻의 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다른 어떤 존재의 뜻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스스로 계획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가장 크게 드러내시려 이 모든 계획들을 정하셨다. 하나님의 법령(작정)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

**QUESTION 12: HOW DOES GOD EXECUTE HIS DECREES?**

**Answer: God executes his decrees in the works of creation and providence.**

Revelation 4:11 “Worthy are you, our Lord and God, to receive glory and honor and power, for you created all things, and by your will they existed and were created.”

Matthew 6:26 Look at the birds of the air: they neither sow nor reap nor gather into barns, and yet your heavenly Father feeds them. Are you not of more value than they?

Proverbs 16:9 The heart of man plans his way, but the Lord establishes his steps.

Proverbs 16:33 The lot is cast into the lap, but its every decision is from the Lord.

Proverbs 21:31 The horse is made ready for the day of battle, but the victory belongs to the Lord.

Additional references: Genesis 1:1; Matthew 5:45; Proverbs 19:21; 20:24; 21:1

Comment: Instead of “execute” you can say “perform” or “accomplish” or “bring about”. The word “providence” will be taken up in a later question. For now it refers to the way God preserves and governs all his creatures and all their actions (like the fall of a bird or the election of a president). It refers to God’s general rule over the world he has created.

**질문 12: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령(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시는가?**

**답: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의 역사로 자신의 법령(작정을) 실행하신다.**

요한계시록 4:11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6:26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잠언 16: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잠언 16:33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잠언 21:31 전쟁을 대비하여 군마를 준비해도, 승리는 오직 주님께 달려 있다.

추가 성경구절: 창 1:1; 마 5:45; 잠 19:21; 20:24; 21:1

부연설명: “섭리”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다뤄질 것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창조물과 모든 행위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방식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예: 새 한 마리가 죽는 일이나 대통령의 선출 되는 일). “섭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세상을 일반적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한다.

### QUESTION 13: WHAT IS THE WORK OF CREATION?

**Answer: The work of creation is God’s making all things [out] of nothing by the word of his power, and everything he made was all very good.**

Genesis 1:1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Genesis 1:31 And God saw everything that he had made, and behold, it was very good. And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the sixth day.

Hebrews 11:3 By faith we understand that the universe was created by the word of God, so that what is seen was not made out of things that are visible.

Exodus 20:11 For in six days the Lord made heaven and earth, the sea, and all that is in them, and rested on the seventh day. Therefore the Lord blessed the Sabbath day and made it holy.

Romans 4:17 As it is written, “I have made you the father of many nations”—in the presence of the God in whom he believed, who gives life to the dead and calls into existence the things that do not exist.

Comment: Before creation there was only God in the holy fellowship of the Trinity. Therefore, his creation is always different from ours: we start with something.

### 질문 13: 창조 사역이란 무엇인가?

답: 창조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과 또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신 것을 의미한다.

창세기 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31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날이 지났다.

히브리서 11:3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11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 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로마서 4:17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부연설명: 창조 전에는 오직 삼위일체로서 거룩한 교제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만 존재하셨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물은 언제나 우리의 창조물과 다르다.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다른 것을 창조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 QUESTION 14: HOW DID GOD CREATE MAN?

**Answer: God created man male and female, after his own image, in knowledge, righteousness, and holiness, with dominion over the creatures.**

Genesis 1:27–28 So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him;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sup>28</sup> And God blessed them. And God said to them,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fill the earth and subdue it, and have dominion over the fish of the sea and over the birds of the heavens and over every living thing that moves on the earth.”

Colossians 3:10 And have put on the new self, which is being renewed in knowledge after the image of its creator.

Ephesians 4:24 And to put on the new self, created after the likeness of God in true righteousness and holiness.

Comment: In saying that we were created after his image “in knowledge, righteousness and holiness,” we do not mean we know all God knows, nor that we are a fountain of righteousness and holiness the way he is. We mean that we were capable of sharing his knowledge and righteousness and holiness in a relationship of trust and love unlike any other creature under the angels.

질문 14: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나?

답: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지적인 능력과 의로움과 거룩함 가운데,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도록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1:27-28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sup>28</sup>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골로새서 3:10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에베소서 4:24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부연설명: “지적인 능력과 의로움과 거룩함 가운데 창조”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고 있거나, 하나님이 의와 거룩의 원천이신 것처럼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다. 이 말은 천사들 이외의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지식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 받았다는 뜻이다.

## QUESTION 15: WHAT ARE GOD’S WORKS OF PROVIDENCE?

**Answer: God’s works of providence are the holy, wise, and powerful acts which he preserves and governs all his creatures, and all their actions.**

Nehemiah 9:6 “You are the Lord, you alone. You have made heaven, the heaven of heavens, with all their host, the earth and all that is on it, the seas and all that is in them; and you preserve all of them; and the host of heaven worships you.

Colossians 1:17 And he is before all things, and in him all things hold together.

Hebrews 1:3 He is the radiance of the glory of God and the exact imprint of his nature, and he upholds the universe by the word of his power. After making purification for sins, he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Majesty on high,

Psalms 103:19 The Lord has established his throne in the heavens, and his kingdom rules over all.

Matthew 10:29–30 Are not two sparrows sold for a penny? And not one of them will fall to the ground apart from your Father. <sup>30</sup> But even the hairs of your head are all numbered.

Comment: It would be helpful to discuss this with your child in relation to the common concept of “luck.” Is there such a thing as luck in a world ruled by the providence of God? “The lot is cast into the lap, but the decision is wholly from the Lord” (16:33). You will also need to stress that many of God’s acts of providence may not look “holy and wise” (like storms that kill thousands of people). But then stress that God has his secret purposes (Deut. 29:29: “The secret things belong to the LORD our God”) that we are never great enough to see, and the Judge of all the earth always does right (Genesis 18:25).

## 질문 15: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인가?

답: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행위들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지혜로우며, 능력 있는 일들이다.

느헤미야 9:6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서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거기에 딸린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그 위에 있는 온갖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들이 주님께 경배합니다.

골로새서 1:17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히브리서 1:3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시편 103:19 주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든든히 세우시고, 그의 나라는 만유를 통치하십니다.

마태복음 10:29–30 참새 두 마리가 한 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sup>30</sup>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 놓고 계신다.

부연설명: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설명 할 때 흔히 말하는 “운”의 개념과 연결해서 설명해 주면 도움이 된다.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려지는 세상에 과연 “운”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잠 16:33).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이 언제나 “거룩하고 지혜로우”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해 주어야 한다. (예,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자연재해 등). 그러나, 신명기 29:29(“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에서 말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숨겨진 비밀스러운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세상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옳은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창 18:25)을 우리 아이들에게 강조해줘야 한다.

**QUESTION 16: WHAT SPECIAL ACT OF PROVIDENCE DID GOD EXERCISE TOWARDS MAN WHEN HE WAS FIRST CREATED?**

**Answer: When God had created man, he made a covenant with him that he should live and enjoy all the benefits of creation, but that he would die if he forsook the obedience that comes from faith. God commanded him not to eat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and thus forsake his child-like dependence upon God for all things.**

Genesis 2:15–17 The Lord God took the man and put him in the garden of Eden to work it and keep it. <sup>16</sup> And the Lord God commanded the man, saying, “You may surely eat of every tree of the garden, <sup>17</sup> but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you shall not eat, for in the day that you eat of it you shall surely die.”

Galatians 3:12 But the law is not of faith, rather “The one who does them shall live by them.”

Romans 5:12 Therefore, just as sin came into the world through one man, and death through sin, and so death spread to all men because all sinned

Comment: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is the ability to judge independently what is beneficial (good) and harmful (evil) for yourself. What God is forbidding is that man should choose to be independent from God in his evaluation of things. He is commanding man to walk by faith in the wise and loving care of his heavenly Father. (See the use of this phrase in Gen. 3:5, 22; 2 Sam. 14:17; Is. 7:15; 2 Sam 19:35.)

질문 16: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행하신 특별한 섭리의 사역은 무엇이었나?

답: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모든 창조의 혜택을 누리며 살도록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고, 만약 그가 이 언약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거부했을 때 죽게 될 것이라 경고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않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셨다.

창세기 2:15-17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sup>16</sup>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sup>17</sup>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갈라디아서 3:12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로마서 5:12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연설명: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은 하나님과 독립되어 스스로 무엇이 옳고(선) 그른지(악) 판단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독립된 존재로서 스스로를 위해 판단을 내리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하늘 아버지의 돌봄을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QUESTION 17: DID OUR FIRST PARENTS CONTINUE IN THE GLAD OBEDIENCE FOR WHICH THEY WERE CREATED?**

**Answer: No, but desiring to be like God, our first parents forsook the obedience of faith, ate of the forbidden tree, sinned against God, and fell from the innocence in which they were created.**

Genesis 3:1-7 Now the serpent was more crafty than any other beast of the field that the Lord God had made. He said to the woman, “Did God actually say, ‘You shall not eat of any tree in the garden?’”<sup>2</sup> And the woman said to the serpent, “We may eat of the fruit of the trees in the garden,<sup>3</sup> but God said, ‘You shall not eat of the fruit of the tree that is in the midst of the garden, neither shall you touch it, lest you die.’”<sup>4</sup> But the serpent said to the woman, “You will not surely die.<sup>5</sup> For God knows that **when you eat of it your eyes will be opened, and you will be like God, knowing good and evil.**”<sup>6</sup> So when the woman saw that the tree was good for food, and that it was a delight to the eyes, and that the tree was to be desired to make one wise, she took of its fruit and ate, and she also gave some to her husband who was with her, and he ate.<sup>7</sup> Then the eyes of both were opened, and they knew that they were naked. And they sewed fig leaves together and made themselves loincloths.

Ecclesiastes 7:29 See, this alone I found, that God made man upright, but they have sought out many schemes.

Romans 5:12 Therefore, just as sin came into the world through one man, and death through sin, and so death spread to all men because all sinned—

질문 17: 우리의 첫 부모는 창조된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 계속해서 순종했는가?

답: 아니다. 우리의 첫 부모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어 죄가 없는 순결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되었다.

창세기 3:1-7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sup>2</sup>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sup>3</sup>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여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sup>4</sup>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sup>5</sup>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sup>6</sup>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즐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sup>7</sup>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전도서 7:29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로마서 5:12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 QUESTION 18: WHAT IS SIN?

**Answer: Sin is transgression of the revealed will of God which teaches that we are to act in perfect holiness from a heart of faith to the glory of God.**

1 John 3:4 Everyone who makes a practice of sinning also practices lawlessness; sin is lawlessness.

Romans 5:13 for sin indeed was in the world before the law was given, but sin is not counted where there is no law.

Romans 14:23 But whoever has doubts is condemned if he eats, because the eating is not from faith. For whatever does not proceed from faith is sin.

1 Peter 1:16 since it is written, “You shall be holy, for I am holy.”

Matthew 5:48 You therefore must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1 Corinthians 10:31 So,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all to the glory of God.

Comment Simplified: Sin is any attitude or desire or action that explicitly breaks a commandment of Scripture, or comes from a heart of unbelief or is not done for the glory of God.

## 질문 18: 죄란 무엇인가?

답: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의 마음으로 완전한 거룩함 가운데 행하라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어기는 것이다.

요한 1서 3:4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로마서 5:13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4:23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베드로전서 1:16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고린도전서 10:31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부연설명: 죄는 성경의 계명을 대놓고 어기는 태도, 욕망, 또는 행동이고, 죄는 불신의 마음에서 야기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QUESTION 19: WHAT WAS THE SIN WHEREBY OUR FIRST PARENTS FELL FROM THE ESTATE WHEREIN THEY WERE CREATED?**

**Answer: The sin whereby our first parents fell from the estate wherein they were created, was their eating the forbidden fruit.**

Genesis 3:6, 12-13 So when the woman saw that the tree was good for food, and that it was a delight to the eyes, and that the tree was to be desired to make one wise, she took of its fruit and ate, and she also gave some to her husband who was with her, and he ate. . . .<sup>12</sup> The man said, “The woman whom you gave to be with me, she gave me fruit of the tree, and I ate.”<sup>13</sup> Then the Lord God said to the woman, “What is this that you have done?” The woman said, “The serpent deceived me, and I ate.”

1 John 2:16 For all that is in the world—the desires of the flesh and the desires of the eyes and pride of life—is not from the Father but is from the world.

1 Timothy 2:13–14 For Adam was formed first, then Eve;<sup>14</sup> and Adam was not deceived, but the woman was deceived and became a transgressor.

**질문 19: 우리의 첫번째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던 상태에서 타락하게 만든 죄는 무엇이었나?**

**답: 우리의 첫번째 부모가 지었던 첫번째 죄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은 것이었다.**

창세기 3:6, 12-13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 . .<sup>12</sup>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sup>13</sup>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꺾어서 먹었습니다.”

요한일서 2:16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13–14 사실,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sup>14</sup>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 QUESTION 20: DID ALL MANKIND FALL IN ADAM'S FIRST SIN?

**Answer: All mankind, descending from Adam by ordinary generation, sinned in him, and fell with him in his first sin.**

1 Corinthians 15:21–22 For as by a man came death, by a man has come also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sup>22</sup> For as in Adam all die, so also in Christ shall all be made alive.

Romans 5:12 Therefore, just as sin came into the world through one man, and death through sin, and so death spread to all men because all sinned—

Romans 5:18–19 Therefore, as one trespass led to condemnation for all men, so one act of righteousness leads to justification and life for all men. <sup>19</sup> For as by the one man's disobedience the many were made sinners, so by the one man's obedience the many will be made righteous.

Revelation 20:12 And I saw the dead, great and small, standing before the throne, and books were opened. Then another book was opened, which is the book of life. And the dead were judged by what was written in the books, according to what they had done.

Comment: God considered all mankind as being in Adam so that when Adam went bad we all went bad in him. The nature that we have by virtue of belonging to Adam's race is morally corrupt. We are under the wrath of God "by nature" (Ephesians 2:3) from the time we were conceived in the womb. This is why conversion and salvation must be much more than a "decision" for Christ. It must be a new creation, a rebirth, an exchange of hearts.

**질문 20: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번째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었나?**

**답: 모든 인류는 아담의 생물학적 후손으로서 아담 안에서 죄를 짓고, 그의 첫번째 죄로 인해 아담과 함께 타락하게 되었다.**

고린도전서 15:21–22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sup>22</sup>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12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18–19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sup>19</sup>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12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부연설명: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를 아담 안에 있다고 여기셨기에 아담이 타락했을 때 모든 인류가 그와 함께 타락하게 된 것이다. 아담 족속으로서 우리의 본성은 도덕적으로 부패했다. 우리는 태속에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엡 2:3). 이로 인해, 회심과 구원은 반드시 단순히 그리스도를 위한 "결심" 이상을 의미해야 한다. 구원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는 것이며 마음에 변화를 입는 것을 의미한다.

**QUESTIONS 21-23: INTO WHAT CONDITION DID THE FALL BRING MANKIND?**

**Answer: The fall brought mankind into a condition of sin and misery.**

Romans 5:18-19 Therefore, as one trespass led to condemnation for all men, so one act of righteousness leads to justification and life for all men. <sup>19</sup> For as by the one man's disobedience the many were made sinners, so by the one man's obedience the many will be made righteous.

Psalm 51:5 Behold, I was brought forth in iniquity, and in sin did my mother conceive me.

Romans 7:18 For I know that nothing good dwells in me, that is, in my flesh. For I have the desire to do what is right, but not the ability to carry it out.

Isaiah 64:6 We have all become like one who is unclean, and all our righteous deeds are like a polluted garment. We all fade like a leaf, and our iniquities, like the wind, take us away.

Ephesians 2:1-3 And you were dead in the trespasses and sins <sup>2</sup> in which you once walked, following the course of this world, following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the spirit that is now at work in the sons of disobedience— <sup>3</sup> among whom we all once lived in the passions of our flesh, carrying out the desires of the body and the mind, and were by nature children of wrath, like the rest of mankind.

1 Corinthians 2:14 The natural person does not accept the things of the Spirit of God, for they are folly to him, and he is not able to understand them because they are spiritually discerned.

John 3:6-7 That which is born of the flesh is flesh, and that which is born of the Spirit is spirit. <sup>7</sup> Do not marvel that I said to you, 'You must be born again.'

Comment: In Adam, we fell into sin and faced its consequences: the corruption of our entire nature, the loss of original righteousness, broken communion with God, and subjection to his wrath and curse. Thus, in Adam, we became subject to all the miseries of this life, to death itself, and to the eternal pains of hell.

**질문 21-23: 아담의 타락이 인류를 어떤 상태로 만들었는가?**

**답: 아담의 타락은 인류를 죄에 빠뜨려 비참한 상태로 이르도록 만들었다.**

로마서 5:18-19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sup>19</sup>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시편 51:5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서 7:18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이사야 64:6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 갑니다.

에베소서 2:1-3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sup>2</sup> 그 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sup>3</sup>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14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6-7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sup>7</sup>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부연설명: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에 빠졌고 그 결과를 직면하게 되었다: 본성의 부패, 타락전 의로움의 상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교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임. 이로 인해 아담 안에서 우리는 이 생의 모든 고통, 죽음,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 처하게 되었다.

## QUESTION 24: DID GOD LEAVE ALL MANKIND TO PERISH IN THE CONDITION OF SIN AND MISERY?

**Answer: God, out of his mere good pleasure, from all eternity, having chosen a people to everlasting life, did enter into a covenant of grace, to deliver them out of the condition of sin and misery, and to bring them into a condition of salvation, by a Redeemer.**

Ephesians 1:3–5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has blessed us in Christ with every spiritual blessing in the heavenly places,<sup>4</sup> even as he chose us in him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that we should be holy and blameless before him. In love<sup>5</sup> he predestined us for adoption to himself as sons through Jesus Christ, according to the purpose of his will,

2 Thessalonians 2:13 But we ought always to give thanks to God for you, brothers beloved by the Lord, because God chose you as the firstfruits to be saved, through sanctification by the Spirit and belief in the truth.

Acts 13:48 And when the Gentiles heard this, they began rejoicing and glorifying the word of the Lord, and as many as were appointed to eternal life believed.

Jeremiah 31:33 For this is the covenant that I will make with the house of Israel after those days, declares the Lord: I will put my law within them, and I will write it on their hearts. And I will be their God, and they shall be my people.

Additional Scriptures: Rom 5:21; 8:29-30; 9:11-12; 11:5-7

Comment: The term “covenant of grace” is filled with sweet and precious hope. It refers to the free decision, commitment and oath of God to employ all his omnipotence and wisdom and love to rescue and glorify his people from sin and misery. It is wholly initiated and carried through by God. It cannot fail.

It is valid for all who believe. Whosoever will may come and enjoy this grace! And, since this “believing” and this “willing” is a work of God’s sovereign grace, those who believe and come are the elect, “chosen in Christ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Eph. 1:4). Thus the covenant was sealed in the heart of God before the world was.

This “covenant of grace” is the cry of victory over all the battle strife in missions. The grace of God will triumph! He is covenant-bound, oath-bound to save all those who are foreordained to eternal life (Acts 13:48)! “Jesus died for the nation (of Jews), and not for the nation only, but to gather into one the children of God who are scattered abroad” (John 11:52).

The battle cry of missions is, “The Lord has other sheep that are not of this fold: He must (covenant-bound!!) bring them also. They will (sovereign grace!!) heed his voice!” (John 10:16).

질문 24: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한 상태로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셨나?

답: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영원 전부터 한 백성을 택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그들을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구원하시며 구속자를 통해 구원의 상태로 인도하시기 위해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다.

에베소서 1:3-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sup>4</sup>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sup>5</sup>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테살로니가후서 2:13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48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예레미야 31:33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 주며, 그들의 마음 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추가 성경구절: 롬 5:21; 8:29-30; 9:11-12; 11:5-7

부연설명: “은혜의 언약”이라는 표현은 달콤하고 소중한 소망으로 가득하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과 지혜와 사랑을 다해 자신의 자유로운 뜻에 따라 그의 백성을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하고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결정하시고, 헌신하시며, 맹세하신 것을 뜻한다. 이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것이며,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 언약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나아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원함”조차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믿고 나아오는 자들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다 (엡 1:4). 그래서 이 언약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확정된 것이다.

이 “은혜의 언약”은 선교의 모든 투쟁에서 들리는 승리의 외침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에 예정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언약과 맹세로 확증하셨다 (행 13:48). “예수께서 그 [유대] 민족을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죽으셨다” (요 11:52).

선교의 전투현장에서 들리는 외침은 이것이다: “주님께 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으니, 반드시 (언약으로 묶임!!) 그들을 이끌어야 한다. 그들은 (주권적 은혜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요 10:16).

**QUESTION 25: WHO IS THE REDEEMER OF GOD’S ELECT?**

**Answer: The only Redeemer of God’s elect is the Lord Jesus Christ, who, being the eternal Son of God, became man, and so was and continues to be God and man, in two distinct natures and one person, forever.**

Galatians 3:13 Christ redeemed us from the curse of the law by becoming a curse for us—for it is written, “Cursed is everyone who is hanged on a tree”—

1 Timothy 2:5 For there is one God, and there is one mediator between God and men, the man Christ Jesus,

John 1:14 And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and we have seen his glory, glory as of the only Son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Colossians 2:9 For in him the whole fullness of deity dwells bodily,

Additional Scriptures: Romans 9:5; 1 Timothy 3:16

Comment: Biblically, a redeemer is one who delivers or saves another from bondage or harm, often through payment of a price. So, to redeem means to buy back or restore something or someone to its rightful state. We were lost because of our sins, but our Redeemer Jesus redeemed or bought us back to God the Father by paying the penalty for our sins with this blood.

질문 25: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인가?

답: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써 사람이 되셨기에 두 가지 본성(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한 인격으로서 영원히 하나님이자 사람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혹은,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5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요한복음 1:14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골로새서 2:9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부연설명: 성경에서 구속자는 속박이나 해약에서 누군가를 구원하는 사람이며, 대가를 지불해 그 일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구속하다’는 단어는 원래 상태로 회복하거나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구속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구속하여 주셨다.

**QUESTION 26: HOW DID CHRIST, BEING THE SON OF GOD, BECOME MAN?**

**Answer: Christ, the Son of God, became man by taking to himself a true body and a reasonable soul. He was conceived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 womb of the Virgin Mary, and was born of her, yet without sin.**

John 1:14 And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and we have seen his glory, glory as of the only Son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Colossians 2:9 For in him the whole fullness of deity dwells bodily,

Luke 1:35 And the angel answered her, “The Holy Spirit will come upon you, and the power of the Most High will overshadow you; therefore the child to be born will be called holy—the Son of God.

Luke 2:52 And Jesus increased in wisdom and in stature and in favor with God and man.

Hebrews 2:14 Since therefore the children share in flesh and blood, he himself likewise partook of the same things, that through death he might destroy the one who has the power of death, that is, the devil,

Hebrews 7:26 For it was indeed fitting that we should have such a high priest, holy, innocent, unstained, separated from sinners, and exalted above the heavens.

Additional references: Matt 26:38; Luke 1:31; John 12:27; Heb 4:14

Comment: Jesus was one person with two natures—divine and human. We may not fully grasp how this mysterious truth works, yet the Bible clearly shows that the divine Word took on human flesh and became the God-man. As fully God and fully man, Jesus fulfilled God’s redemptive plan for all humanity.

질문 26: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을까?

답: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몸과 이성적인 혼을 취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다. 그분은 성령님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되었으며, 죄 없이 그녀에게서 태어나셨다.

요한복음 1:14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골로새서 2:9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35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 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누가복음 2:52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히브리서 2:14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히브리서 7:26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추가 성경구절: 마 26:28; 눅 1:31; 요 12:27; 히 4:14

부연설명: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신성과 인성을 모두 지니고 계신다. 우리가 이 신비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하나님이신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인 존재”가 되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완수하셨다.

**QUESTION 27: WHAT OFFICES DOES CHRIST PERFORM AS OUR REDEEMER?**

**Answer: Christ, as our Redeemer, performs the offices of a prophet, of a priest, and of a king, both in his condition of humiliation and exaltation.**

Prophet:

Acts 3:22 Moses said, ‘The Lord God will raise up for you **a prophet like me** from your brothers. You shall listen to him in whatever he tells you.’ [Deut 18:15]

Hebrews 1:1–2 Long ago, at many times and in many ways, God spoke to our fathers by the prophets, <sup>2</sup> but **in these last days he has spoken to us by his Son . . .**

Priest:

Hebrews 4:14 Since then we have **a great high priest** who has passed through the heavens, **Jesus, the Son of God**, let us hold fast our confession.

Hebrews 5:6 as he says also in another place, “You are a priest forever, after the order of Melchizedek.” [Ps 110:4]

King:

Psalms 2:6–9 “As for me, I have set **my King** on Zion, my holy hill.” <sup>7</sup> . . . “You are **my Son**; today I have begotten you. <sup>8</sup> Ask of me, and I will make the nations your heritage, and the ends of the earth your possession. <sup>9</sup> You shall break them with **a rod of iron** and dash them in pieces like a potter’s vessel.”

Revelation 19:15–16 From his mouth comes a sharp sword with which to strike down the nations, and he will rule them with **a rod of iron**. He will tread the winepress of the fury of the wrath of God the Almighty. <sup>16</sup> On his robe and on his thigh he has a name written,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답: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지신 상태와 높아지신 상태에서 대언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대언자:

사도행전 3:22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예언자**를 세워 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히브리서 1:1–2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sup>2</sup>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 .**

제사장:

히브리서 4:14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히브리서 5:6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왕:

시편 2:6–9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sup>7</sup> . . .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sup>8</sup> 내게 청하여라. 못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sup>9</sup> 네가 그들을 **철퇴[혹은, “쇠지팡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요한계시록 19:15–16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sup>16</sup>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 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질문 27.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수행하시는 직분은 무엇인가?



**QUESTION 28: HOW DOES CHRIST PERFORM THE OFFICE OF A PROPHET?**

**Answer: Christ performs the office of a prophet, in revealing to us, by his Word and Spirit, the will of God for our salvation.**

John 1:18 No one has ever seen God; the only God, who is at the Father's side, he has made him known.

John 14:26 But the Helper, the Holy Spirit, whom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 he will teach you all things and bring to your remembrance all that I have said to you.

John 15:15 No longer do I call you servants, for the servant does not know what his master is doing; but I have called you friends, for all that I have heard from my Father I have made known to you.

Hebrews 1:1-2 Long ago, at many times and in many ways, God spoke to our fathers by the prophets, <sup>2</sup> but in these last days he has spoken to us by his Son, whom he appointed the heir of all things, through whom also he created the world.

질문 28: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대언자의 직분을 수행하시는가?

답: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요한복음 1:18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요한복음 14:26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5:15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1-2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sup>2</sup>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QUESTION 29: HOW DOES CHRIST PERFORM THE OFFICE OF A PRIEST?**

**Answer: Christ performs the office of a priest by once offering himself as a sacrifice to satisfy divine justice, and to reconcile us to God; and by making continual intercession for us before God.**

1 Peter 2:24 He himself bore our sins in his body on the tree, that we might die to sin and live to righteousness. By his wounds you have been healed.

Hebrews 2:17 Therefore he had to be made like his brothers in every respect, so that he might become a merciful and faithful high priest in the service of God, to make propitiation for the sins of the people.

Hebrews 7:25 Consequently, he is able to save to the uttermost those who draw near to God through him, since he always lives to make intercession for them.

Hebrews 9:28 so Christ, having been offered once to bear the sins of many, will appear a second time, not to deal with sin but to save those who are eagerly waiting for him.

Romans 8:34 Who is to condemn? Christ Jesus is the one who died—more than that, who was raised—who is at the right hand of God, who indeed is interceding for us.

Ephesians 5:2 And walk in love, as Christ loved us and gave himself up for us, a fragrant offering and sacrifice to God.

질문 29: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시는가?

답: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단 한 번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제사장의 직분을 이루셨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심으로써 그 직분을 계속 감당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24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2:17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7:25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히브리서 9:28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34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에베소서 5:2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QUESTION 30: HOW DOES CHRIST PERFORM THE OFFICE OF A KING?**

**Answer: Christ performs the office of a king, in subduing us to himself, in ruling and defending us, and in restraining and conquering all his and our enemies.**

Psalm 110:1–2 The LORD [Yahweh] says to **my Lord [the Davidic/Messianic King]**: “Sit at my right hand, until I make your enemies your footstool.” <sup>2</sup> The LORD sends forth from Zion your mighty scepter. Rule in the midst of your enemies!

Matthew 2:2–6 ... [The wise men:] “Where is he who has been born **king of the Jews**? For we saw his star when it rose and have come to worship him.” . . . <sup>4</sup> . . . assembling all the chief priests and scribes of the people, he [Herod] inquired of them where **the Christ [or “Messiah”]** was to be born. <sup>5</sup> They told him, “In Bethlehem of Judea, for so it is written by the prophet [Micah 5:2]: <sup>6</sup> “And you, O Bethlehem, in the land of Judah, are by no means least among the rulers of Judah; for from you shall come **a ruler who will shepherd my people Israel.**”

Luke 1:32–33 He will be great and will be called the Son of the Most High. And the Lord God will give to him **the throne of his father David,** <sup>33</sup> and **he will reign over the house of Jacob forever, and of his kingdom there will be no end.**”

1 Corinthians 15:23–25 But each [is resurrected] in his own order: **Christ** the firstfruits, then at his coming those who belong to Christ. <sup>24</sup> Then comes the end, when **he** delivers the kingdom to God the Father after destroying every rule and every authority and power. <sup>25</sup> **For he must reign until he has put all his enemies under his feet.**

**질문 30: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왕의 직분을 수행하시는가?**

**답: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시키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실 뿐 아니라, 모든 대적과 우리의 원수들을 억제하고 정복하심으로 왕의 직분을 수행하신다.**

시편 110:1–2 주님[야훼]께서 내 주님[다윗의 계통을 따른 메시아인 왕]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sup>2</sup> 주님께서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시니, 임금님께서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마태복음 2:2–6 [동방박사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 . . <sup>4</sup>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 놓고서, **그리스도[혹은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 보았다. <sup>5</sup>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sup>6</sup>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누가복음 1:32–33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sup>33</sup>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23–25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sup>24</sup> 그 때가 마지막입니다. 그 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sup>25</sup>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 QUESTION 31: WHAT DO WE MEAN BY CHRIST'S HUMILIATION?

**Answer: By Christ's humiliation we mean that he was born, and that in a low condition; that he was made under the law, and underwent the miseries of this life, the wrath of God, and the cursed death of the cross; that he was buried, and continued under the power of death for a time.**

Luke 2:7 And she gave birth to her firstborn son and wrapped him in swaddling cloths and laid him in a manger, because there was no place for them in the inn.

Galatians 4:4 But when the fullness of time had come, God sent forth his Son, born of woman, born under the law,

Isaiah 53:3 He was despised and rejected by men, a man of sorrows and acquainted with grief; and as one from whom men hide their faces he was despised, and we esteemed him not.

Matthew 27:46 And about the ninth hour Jesus cried out with a loud voice, saying, "Eli, Eli, lema sabachthani?" that is,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Matthew 12:40 For just as Jonah was three days and three nights in the belly of the great fish, so will the Son of Man be three days and three nights in the heart of the earth.

Philippians 2:8 And being found in human form, he humbled himself by becoming obedient to the point of death, even death on a cross.

질문 31: 그리스도의 비하/굴욕/낮아지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답: 그리스도의 비하/굴욕/낮아지심이란 곧 주님이 태어나실 때 낮은 형편에서 나셨고, 율법 아래 태어나셨으며,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난과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저주받은 죽음을 겪으셨음을 의미한다. 또한, 주님은 무덤에 묻히시고, 잠깐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무르셨다.

누가복음 2:7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4:4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3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마태복음 27:46 세 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마태복음 12:40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빌립보서 2:8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QUESTION 32: WHAT DO WE MEAN BY CHRIST'S EXALTATION?**

**Answer: By Christ's exaltation we mean his rising again from the dead on the third day, ascending up into heaven, sitting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nd coming to judge the world at the last day.**

1 Corinthians 15:4 that he was buried, that he was raised on the third day in accordance with the Scriptures,

Acts 2:32-33a This Jesus God raised up, and of that we all are witnesses. <sup>33</sup> Being therefore exalted at the right hand of God. . .

Acts 1:11 and said, "Men of Galilee, why do you stand looking into heaven? This Jesus, who was taken up from you into heaven, will come in the same way as you saw him go into heaven."

Acts 17:31 because he has fixed a day on which he will judge the world in righteousness by a man whom he has appointed; and of this he has given assurance to all by raising him from the dead."

Philippians 2:8-11 And being found in human form, he humbled himself by becoming obedient to the point of death, even death on a cross. <sup>9</sup> Therefore God has highly exalted him and bestowed on him the name that is above every name, <sup>10</sup> so that at the name of Jesus every knee should bow, in heaven and on earth and under the earth, <sup>11</sup> and every tongue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Lord, to the glory of God the Father.

**질문 32: 그리스도의 승귀(높아지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분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린도전서 15:4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사도행전 2:32-33a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sup>33</sup>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 .

사도행전 1:11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행전 17:31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8-11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sup>9</sup>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sup>10</sup>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sup>11</sup>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